

[1] 속미인곡 모의 평가 1회

반	번호	이름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데 가 더 각시 본 듯도 더이고
㉠턴상(天上) 옥경(白玉京)을 었디하야 니별(離別) 고
다 더 저른 날의 놀을 보라 가시 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 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즉 가마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
나도 님을 미더 군 디 전혀 업서
이 야 교 야 어 러이 듯 디
㉢반기시 비치 네와 었디 다 신고
누어 각 고 니러안자 헤여 니
내 몸의 지은 죄 뵈 티 허시니
하 히라 원망 며 사 이라 허를 라
설워 플터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글란 각 마오 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뵈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믈 얼굴이 편 실 적 몇 날일고
㉣춘한고열(春寒苦熱)은 었디 야 디내시며
츄일동턴(秋日冬天)은 뉘라셔 뵈섯 고
㉤죽조반(粥早飯) 죠석(朝夕) 뵈 네와 티 세시 가
기나긴 밤의 은 었디 자시 고
님 다히 쇼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자 니
오 도 거의로다 일이나 사 올라
내 둘 업다 어드러로 가쟈 말고
잡거니 밀거니 뉘픈 뵈 올라가니
㉦구름은 니와 안개 므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었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 거든 천 리(千里) 라보라
하리 믈 의 가 길히나 보라 니
람이야 뉘결이야 어등정 된더이고
샤공은 어 가고 뵈 만 걸렷 고
강턴(江天)의 혼자 서셔 디 구버보니
님 다히 쇼식(消息)이 더욱 아득 더이고
모첩(茅簷)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놀 위 야 갓 고
오 며 리며 헤 며 바자니니
저근덧 녀진(力盡) 야 꾯 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 야 의 님을 보니
옥(玉) 일구리 반(半)이 나마 늘거세라
의 머근 말 슬 장 자 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 인들 어이 며
정(情)을 못다 야 목이조차 메여 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은 었디 뉘던고

어와 허 (虛事)로다 이 님이 어 간고
결의 니러안자 창(窓)을 열고 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 이로다
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窓) 안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이야 니와 ㉢구 비나 되쇼셔
- 정철, ‘속미인곡’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을 향한 화자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두 인물이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여성 화자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 ④ 부정적 상황을 벗어나려는 화자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 ⑤ 임의 부재에 따른 슬픔과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은 천기가 저절로 있고 이속의 천박함이 없으니,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참문장은 이 세 편뿐이다. 그런데 세 편을 가지고 다시 따져 본다면, ‘속미인곡’의 수준이 가장 높다. ‘관동별곡’과 ‘사미인곡’은 여전히 한자어를 빌려서 윤색한 것에 불과하다.
- 김만중, “서포만필”

- ① ㉠ ② ㉢ ③ ㉣ ④ ㉤ ⑤ ㉦

3 다음 밑줄 친 시어 중, ㉦의 상징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구름이 무심 말이 아마도 허랑 다. / 중천에 이셔 임의 로 니면서 / 구 야 광명 날빛 라가며 뉘 니.
- 이준오
- ②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 잡초나 일깨우는 잔 바람이 되라네.
- 신경림, ‘목계 장터’
- ③ 손에 닿을 듯한 봄 하늘에 / 구름은 무심히도 / 북으로 흘러가고, / 어디서 울려 오는 포성 몇 발, / 나는 그만 이 은원(恩怨)의 무덤 앞에 / 목놓아 버린다.
- 구상, ‘초토의 시 8’
- ④ 도 쉬여 님 고 , 구름이라도 쉬여 님 고 . /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 도 다 쉬여 님 고봉 장성령 고 . / 그 너머 님이 왔다 면 나 아니 번도 쉬여 넘어가리라.
- 지은이 모름
- ⑤ 천 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 그건 결국 도련님 께 아니어요? //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 /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여요.
- 서정주, ‘춘향 유문 - 춘향의 말 3’

문 학

4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 모두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비유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 ② ㉠과 ㉡ 모두 사후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극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다.
- ③ ㉠은 하늘에 머무르는 존재이고, ㉡은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존재이다.
- ④ ㉠은 임을 지켜보는 소극적 존재이고, ㉡은 임에게 닿는 적극적인 존재이다.
- ⑤ ㉠은 화자와 임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넓히고, ㉡은 심리적 거리를 좁힌다.

5 | 보기 | 와 이 글의 제목을 연관 지어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김만중은 정철의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이 우리나라의 ‘이소’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소’의 작자 굴원은 본래 초나라 회왕의 총애를 받는 충신이었으나,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우국충정을 담은 ‘이소’로 자신의 진심을 회왕에게 알리려 했지만 결국 유배를 떠나게 되었고, 훗날 강물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 미인(美人)은 바로 굴원이 ‘이소’에서 초나라 회왕을 칭한 말이었다.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여인의 심정에 빗대어 왕에 대한 충심을 노래하는 충신연군지사는 굴원의 ‘이소’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① 정철은 굴원의 ‘이소’에서 ‘미인’이라는 제목을 따온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정철은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의도를 보여 주려 했겠군.
- ③ 이 작품에서 화자와 임의 관계는 정철과 왕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이 작품은 나랏일을 근심하는 우국충정(憂國衷情)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겠군.
- ⑤ 이 작품의 ‘사랑’을 왕에 대한 충심으로 본다면 충신연군지사라 할 수 있겠군.